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율법과 복음 성경: 로마서 8장 9-17절
(Tag:율법,복음,신약성경,로마서,성령,생명,영생,양자)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9-17)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다.

특별히 이 두가지 가치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진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죄악이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치우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진리를 깨우치기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진리를 가

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귀의 계락을 분별하는 것이다. 마귀는 진리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 내는 능력이 최종적으로는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분별의 능력 또한 정확한 진리 훈련에 기초해야 가능하다. 지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분별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전통은 지식의 가치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독과 저주와 망령된 행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지 모른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청소되는게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을 통해서 밀려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우치는데로 그것과 관련된 거짓들이 소멸된다. 마치 불이 모든 것들을 태우듯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잊혀진다. 마귀는 이점을 잘 노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암송하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덩달아 생각나기 때문에 항상 거짓과 싸워 이기게 된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아멘. (특히 이 부분은 유교 전통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유교적 학습전통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다.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미리 예비되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예비하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계시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게 임하게 된다. 마치 햇볕으로 나아갈 때, 햇빛이 나를 감싸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품고 있는 썸이 된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완벽한 율법을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율법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해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가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물려받게 된다.

때가 무르익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계시되기 시작하였다.

창조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이다. 나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영생과 부활에 관한 사업을 완성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관한 계시들, 하나님 나라-천년왕국에 관한 계시들을 잘 설명하셨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 죄와 저주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의 희생으로 말씀하게 정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셨는데, 십자가와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 물론 그 값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값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고소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약속대로 이땅에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불행한 자들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온전하게 복음의 유익을 누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실현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잘 하신다.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장 양질의 도움을 사람들에게 베푸실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있다. 성경은 그 영역을 영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하는데(동양의 혼백처럼), 대개는 혼을 사람 편에서 바라보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고, 영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혼과 성령이 결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표현하셨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의 영, 이미 죽어 있는 영, 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영과의 결합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사망의 영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우리는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중생하였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죽어 있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초점이 관심사가 죄를 범하려는 육신쪽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향하게 된다.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0절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몸은 죽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게 아니라, 여전히 죽지 않는다는 뜻.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몸은 죽고 영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몸의 부활이다.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과 율법;

육신대로 살면;본능대로 살면. 짐승처럼 살면. 우리는 짐승이 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사람. 짐승이라면 억울한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라면 자존심도 있고, 염치도 있고, 떳떳함도 있고, 양심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배

려심도 있고,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영광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은 짐승처럼 살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짐승처럼 산다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바른 행실이 필요한데 죄로 인해서 바른행실을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 훈련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에게 적용해야할 율법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 - 남에게 적용하는 율법, 율법을 역이용하고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경우를 우리는 율법주의라 함.

즉, 율법의 용도를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서 자신의 기능 이상의 기능을 하도록 더 큰 힘과 의미를 부여해서 마침내는 율법이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야 할 율법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율법주의가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밖에서가 아닌, 안에서 우리를 의의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원래의 창조질서 회복이다.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악한 습관과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그 기능은 역시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심지어 성령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령으로 충만해서 그렇다.(육쟁이 사모 이야기)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의 인도가 아닌, 원래의 회복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진정한 거듭남을 뜻함.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율법을 뜻함. 율법 정신. 심판이 무서워 율법을 행하게 됨을 의미함.

양자의 영;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혼과 더불어.(이해하기 쉽도록)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9-17)

자녀라면 상속자; 무엇을 상속하는가? 영광과 고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